춤추고 노래하고 거침없는 입담까지… 김장훈·싸이의 '완타치' 대구공연 리뷰

기발하다, 화끈하다 종횡무진 열정무대

3시간 관객들과 호흡… 내달 26일 광주공연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수는 없다.'

싸이, 김장훈 화끈한 두 남자가 만났다. 그들은 종횡무진 무대를 휘저었다. 3시간 15분 동안 두사람은 노래하고, 춤추고, 거침 없는 입담을 과시했다. 3천여명의 관객들도 뛰고, 춤추고, 환호하고, 열광했다.

지난 21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싸이와 김장훈의 합동 콘서트 '완타치'(제대로 대결을 펼쳐보자는 의미를 담은 은어) 현장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콘서트에 관해서라면 설명이 필요 없는 '공연꾼'들인 두 사람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는 대단했다.

내년 3월까지 광주를 비롯, 25개 도시 공연을 앞두고 첫 선을 보인 이날 공연은 두 사람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카이스트가 특별 제작한 무대 장치 등 풍성한 볼거리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두 사람은 체육관 공연의 장점을 십분 발휘, 본 무대 이외에 플로어에 T자형 돌출 무대와 원형무대를 설치하고 다양한 공연을 진행했다. 1·2부는 각각 싸이와 김장훈이 개별 공연을 진행했다. 수년째 진행해온 각자 공연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준 1·2부는 히트곡 위주로 진행돼 관객들의 집중력을 높였다.

3부는 합동공연, 4부는 앵콜무대로 구성됐다. 특히 무대를 가득 채운 대형 인형, 공중으로 치솟는 크레인 등 다양한 무대 장치와 공연장 이곳저곳에서 쏘아대는 화려한 조명, 기발한 아이디어는 공연을 업그레이드시킨 일등공신이었다.

첫번째 스테이지는 '싸이의 올나이트 스탠드 엑기스'. 화끈하고 재미있기로 유명한 싸이의 공연 중 하이라이트만 모은 무대였다. 본 무대를 가리고 있던 막이 걷히고 무대 바닥에서 싸이가 튀어 올라오며 쇼는 시작됐다. "일어서, 지금 부터 뛰어"라는 싸이의 한마디에 1층 스탠딩석과 2~3층 관객 모두 일어나 발을 구르고 뛰기 시작했다. '낙원' '새' '챔피언' 등 자신의 히트송과 '환희' 등 리메이크곡들로 관객들을 흥분시킨 싸이는 우여곡절 많았던 군 생활을 마치고 갖게 되는 첫번째 무대에 감격하는 모습이었다.

싸이 공연의 또 다른 볼거리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물이었다. 이어 등장한 김장훈이 "영상활용과 관객들을 흥분시키는 데는 싸이가 전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한 것처럼 다양한 영상은 즐거움을 줬다. 특히 땀을 주룩주룩 흘리며 자신만의 독특한 춤과 노래로 관객들을 휘어잡은 싸이는 진정한 뮤지션이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 '공연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김장훈은 수년간 진행해온 '원맨쇼'의 엑기스를 선보였다. 흥겨운 리듬의 '쇼', '난 남자다'로 포문을 연 김장훈의 무대는 무엇보다 환상적인 조명이 돋보였다. 또 원형 무대를 적절히 활용한 퍼포먼스와 관객들과의 호흡은 최고였다. '나와 같다면' 등 잔잔한 발라드는 모든 관객이 함께 불렀다.

3부에서는 두 사람이 제대로 붙었다. 유명 여성그룹 패러디 무대로 웃음을 준 두 사람은 싸이가 김장훈의 발라드를 부르고, 김장훈이 댄스 음악을 부르는 등 의외의 공연도 선보였다. 특히 '낙원'이라는 곡을 함께 부른 두 사람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둘 만의 공연이 이뤄진 데 대해 감사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앙코르 무대는 끝이 없었다. 자신들의 히트곡뿐 아니라 '붉은 노을' 등 유명곡으로 분위기를 한껏 달군 두 사람은 끊임없이 무대에 등장하니 성급하게 공연장을 떠나지 말 것. 공연을 제대로 즐기려면 1층 스탠딩을 공략하자. 관객들과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의 장점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다.

한편 '완타치' 서울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 예매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열기에 힘입어 1회 공연을 추가하는 등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광주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티켓 가격 11만원~6만6천원. www.ticketmaru.co.k 문의 1588-0766.

대구=/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물관도 영화관 처럼 즐겨찾게 할 것"

신임 국립광주박물관 이 원 복 관장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오고 싶어하고, 오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신임 국립광주박물관 이원복(56·사진) 관장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박물관의 교육 기능을 강조했다.

과거 발굴, 연구, 보존 기능만을 중요시 여겼던 박물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끄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장은 "영화관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관람객들이 보지 않은 새로운 영화를 바꿔 상영하기 때문이다"면서 "똑같은 유물을 매일 보여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획 전시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과거의 유물만을 보여주지 않고, 호남의 현대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관 30주년을 맞아 올해 추진한 전시장 리모델링이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다양한 전시를 위해 기획전시관이 확충된다"면서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도 새롭게 짜고, 관람객을 위한 관람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4년여 동안 광주박물관장을 역임했던 그는 재임기간 동안 교육관, 어린이 박물관 개관, 사이버 박물관을 구축하는 등 광주와의 인연도 깊다.

그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면서 "전시장 밖에서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기고, 쉴 수 있도록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장은 서강대 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 1975년 박물관에 입사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시작해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 관장을 지냈다.

또 제1회 동원학술논문상을 수상했으며, '혜원 신윤복의 화경(畵境)' 등 한국미술사 논문 50여편의 논문과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회화-한국 미의 재발견' '한국말 그림' 등의 저서를 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청아한 가야금 선율, 한번 빠져볼까

성애순 연주회 28일 담양 명지원

〈성애순〉

〈서 담〉

늦가을, 맑고 청아한 가야금 선율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성애순 가야금 연주회가 28일 오전 11시 담양에 위치한 예술마을 명지원에서 열린다.

성씨는 이날 공연에서 상령산·중령산 등으로 구성된 전통음악 '가즌 회상' 전곡을 들려준다.

한양대 국악과 출신인 성씨는 현재 전남대 국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광주가야금연주단장을 맡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최옥삼류) 이수자다. 문의 061-383-2577.

서담(전남도립대 실용음악과 교수)의 '가야금 소리로(路)'는 29일 오후 5시 순천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정악 '천년만세' 등 전통음악과 황병기 곡 '하마단', 박경훈 곡 '가을의 노래', 성가곡 '내 주를 가까이' 등을 선사한다.

전남대 국악과 출신인 서씨는 현재 전남도문화재 전문위원,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장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1-749-35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진도에 산수화의 대가 '김옥진 미술관'

2011년 완공 협약식

산수화의 대가 옥산 김옥진(82) 화백의 미술관이 그의 고향인 진도에 건립된다.

진도군은 26일 "김 화백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는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25일 협약식〈사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화백은 자신의 작품 120점과 서적 및 관련 자료를 진도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또 진도군은 오는 2011년 완공 목표로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출신인 김 화백은 의재 허백련의 제자이며, 강렬한 색조와 자유로운 구도, 완숙미 넘치는 필치를 가미해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 온 한국전통 산수화의 대표 작가이다. 지난 1961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추천작가를 시작으로 수십 차례 전시회 열었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